



최근 광주를 방문한 베트남 여행업체 21개사 관계자들이 광주향교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객 짜오 응 깍 반!”

(Chào mừng các bạn·환영합니다)

광주관광공사, 전남·북 ‘맞손’

베트남 여행사 21곳 팸투어...관광객 유치사업 본격화

무안공항 연계 광주 양림동 등 호남권 관광 상품 추진

광주관광공사가 전남·전북과 손잡고 베트남 관광객 유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관광공사는 “전남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여행업체 21개사 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공동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업체 대상 호남권 공동 팸투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역권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상품 기획을 위해 광주와 담양, 여수, 순창, 전주 등 지역의 주요 관광코스를 답사했다.

팸투어는 순천을 시작으로 여수에서 1박 한 뒤 2일치는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양림동 일대 평천마을과 근대역사문화마을, GMAP(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향교(다도, 전통문화체험), 광주공연마루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이후 일정은 순

창, 전주로 이어졌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보문베트남지사 응우옌 반안(Nguyen Van Anh) 대표는 “호남권 관광지 투어를 통해 한국의 맛과 전통 그리고 현대를 다양하게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번 참가자들과 함께 광주를 포함한 좋은 관광상품을 기획해 다시 찾아 오겠다”고 만족해 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호남권 공동 팸투어가 광주로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역의 관광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주가 더욱 매력있는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대폭 확대

먹거리·체험·관광상품 등 48개 추가 총 62개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목이 맛집 제품 등을 포함해 대폭 확대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최근 48개를 추가 선정해 모두 62개 품목으로 늘렸다.

기존 답례품 14종은 지역 농·특산물 위주로 구성돼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맛집, 관

광, 체험 등 분야를 보강했다.

공급업체 공모를 거쳐 ‘베베에르 베이커리’, ‘상무 초밥’, ‘황톳길’ 등 맛집과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은 ‘꿈브루어리’, 광주를 기반으로 1000여건 체험 상품을 제공하는 ‘모람플랫폼’ 등 업체들이 참여하게 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4인 가족 통합 입장권을 1만

원에,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사전 판매 할인가격인 1만5000원에 제공한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30%인 3만원에 한해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여러 답례품을 이용할 수 있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네이밍도네이션, 관광, 체험, 맛집 등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추가된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이달 말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월 정기분 재산세 1576억 부과

광주시, 31일까지 전자납부·위택스 등 납부 가능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0만2463건 1576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서구 365억, 남구 202억, 북구 383억, 광산구 485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6084건(2.34%) 늘었으며, 부과액은 15억원(0.99%)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해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향공기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

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건축물·향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비 온 뒤 약수터 물 마시면 안 됩니다”

광주시 “미생물에 쉽게 오염”

광주시가 장마철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약수터 물 음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약수터로 알려진 먹는 물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 개수일에 비치된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름에는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도 비가 잦고, 강우 후에는 수질이 급변할 수 있어 가급적 손을 씻거나 가볍게 물을 씻는 용도

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해 7~9월 무등산국립공원 약수터 등 광주 6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2곳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는 물 공동시설은 염소계통의 소독을 하지 않아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끓인 물이나 먹는샘물을 휴대하고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여름방학 맛이 생활 속 과학 체험하세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22~26일 선착순 접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광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생활 속 과학을 경험할 수 있게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과학체험교실’과 ‘어린이 주말 과학놀이터’ 2개 과정을 개설한다.

올해 새로 선보이는 ‘주말 과학놀이터’는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검사소에서 주말인 8월 3·4·10일 총 3회 진행한다. 잔류 농약 분석 실험실 실습 등 보호자와 함께 직접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 체험할 예정이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서구 유촌동 보건환경연구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8월 6일과 7일 각 2회씩 총 4회 운영한다.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소속 측정 체험과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 ‘바로예약’ 사이트(<https://www.gwangju.go.kr/reserve/>)를 통해 선착순(과학체험교실 15명, 주말 과학놀이터 8팀·16명)으로 접수받는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들이 폭넓은 과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